서울인쇄센터, 인쇄사 CEO를 위한 특강

인쇄도 OSMU 시대 ... 크로스미디어통한 수익확대 절실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구랍 16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인쇄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쇄사 CEO를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1년은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인쇄센터에서 진행한 CEO특강을 총정리한 이번 특강은 이소현 서울인쇄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프리프레스 분야에 대해 정호균 서울인쇄센터 교수가, 인쇄환경부야에 대해 오세웅 신구대학교 교수가,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 명노삼 휴닉스 대표가, 크로스미디어에 대해 김민수 성도솔루윈 상무이사가 발표했다. 이후 후지제록스의 크로스미디어 시연이 열렸다. 본지에서는 오세웅 신구대학 그래픽아츠미디어과 교수가 발제한 국내외 인쇄산업 동향에 대해 정리한다.

인쇄산업의 환경변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즉, 소프트웨어의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롱런(Long-run)보다는 소량다품종의 인쇄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인쇄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수동적인 수주산업에서 벗어나 정보를 제공하는 능동적인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e-비즈니스에 의한 인쇄시장의 개편과 함께 정보의 디지털화와 통신기술로 인해 웹투프린트(web to print), 크로스 미디어 출판, OSMU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인쇄산업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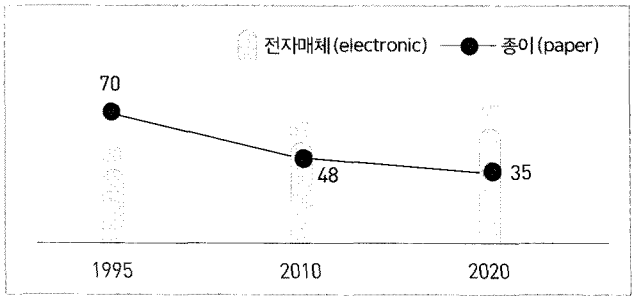
인쇄방식의 시장점유율이 변화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프셋인쇄비중이 60%를 넘고, 디지털 인쇄는 5%미만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프셋인쇄비중이 49%로 나타나 이제는 5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이며, 줄어드는 오프셋인쇄 비중만큼 디지털 인쇄가 급성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CTP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품질 인쇄와 생산성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인쇄공정의 자동화와 표준화(CIP3/CIP4)가 필요하며 직원들의 재교육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정된 콘텐츠가 아닌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이 인쇄에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량인쇄물이 아닌 각각의 개인에 맞춘 개인화 인쇄의 성장, POD인쇄물의 증가, 고객위주의 주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개인화 인쇄물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동안 디지털인쇄가 오프셋인쇄의 품질을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인쇄의 품질이 개선되면서 오프셋 인쇄품질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심지어는 고가의 디지털인쇄기의 경우 오프셋인쇄 품질을 넘어서고 있다.

크로스미디어 출판



〈출처 : F. Romano, RIT〉

하나의 파일로부터 어떤 형태의 출력물로도 만들 수 있다. 이 출력물 중 종이 인쇄물의 절대량은 여전히 증가하지만 전자매체에 시장 점유율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정 개선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인쇄서비스의 범용 상품화

고품질은 더 이상 전통적인 숙련기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다. 예전에는 능숙한 기장들이 눈으로 색을 맞췄기 때문에 숙련된 기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비의 첨단화와 함께 계측계수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숙련된 기장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보유 장비를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졌다. 그래서 인쇄사의 보유 장비 자동화 및 기술적인 우위에 따라 인쇄물의 품질도 달라지고 있다.

인쇄물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의 요구다. 인쇄사들은 높아지고 있는 고객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인쇄사와 차별화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단순히 인쇄물의 납품만으로는 소비자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

〈출처 : F. Romano, RIT〉

인쇄산업의 대응방법

이제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의 개성화와 다양화, 고급화에 맞춘 맞춤형 소비, 맞춤형 생산을 해야 한다. 또한 대량소비에서 벗어나 맞춤형 소비 시대를 맞아 수주산업이 아닌 정보제공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재, 기계, 공장환경, 워크플로, 인쇄물 표준화 등 통합을 위한 표준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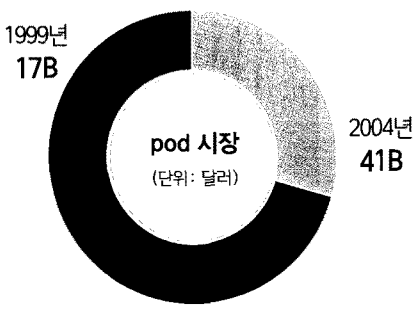
또한 CTP의 도입과 함께 빨라지고 있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쇄사 직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ISO(12647-2), G7, Japan Color 등 세계 인쇄산업 흐름에 맞는 신속한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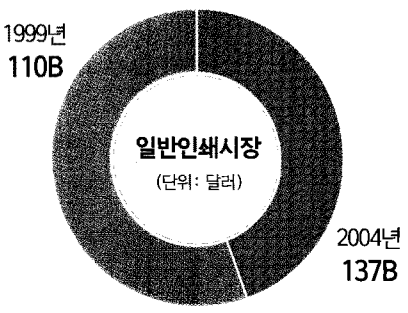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미국의 인쇄시장 변화〉

〈출처 : F. Romano, 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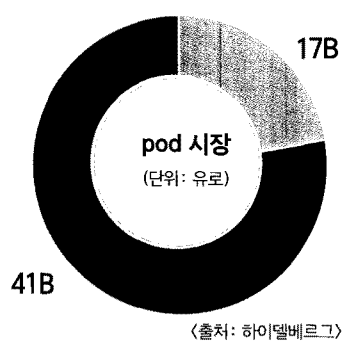


〈출처 : CAP ven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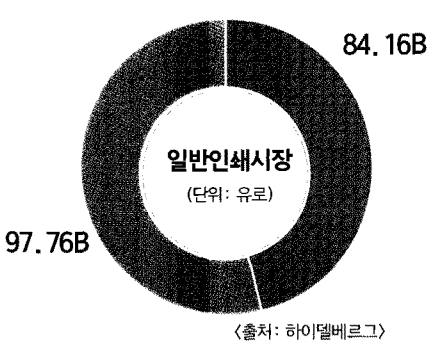


〈출처 : CAP ven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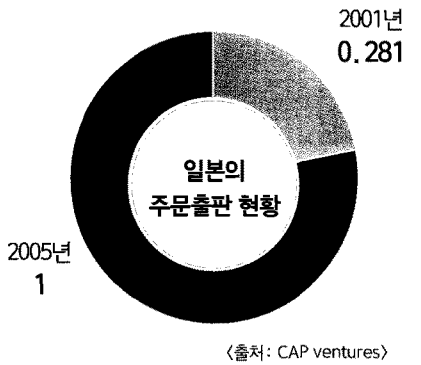
〈유럽의 인쇄시장 변화〉



〈출처: 하이델베르그〉



〈출처: 하이델베르그〉



〈출처: CAP ventures〉